

2017년 5월 29일, 성산을 삼달1리 삼달1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오해옥(여, 1933년생, 성산을 삼달1리)

- 줄거리: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는데 하루는 토끼를 잡아 국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였다. 피 많은 토끼가 솥에서 탈출하고 할머니의 아들을 솥에 넣어 죽게 한 이야기이다.

[제보자] 영감, 할마이가 사는데, 하루는 나가 이거 어릴 때 육지서 살명 들었는다. 영감이 하는 말이, 나무하레 산에 나무하레, 간 갖는다. 산토끼 하나 잡은 거라. 잡안 완 집에 와서 할머니 보고, 할망 보고,

“할멈, 산토끼 하나 잡아왔는데, 국을 끓여 먹자.”

허난, 할망도 지꺼지고 하르방도 지꺼지고 헤네. 이젠 솥디 낵 할망은 토끼를 심 어낵그네 불을 떼그네 딸리젠 허고, 하르방은 저 마당에서 도끼질을 허는데, 토끼는 그 헐 때 그만, 툭툭 튀어난, 솥디 집어 노난 토끼가 튀어난, 그 집이 영감 할마이 애길 잇인 거라. 애기가 물애기가 잇이난, 그 물애긴 누워난 딴, 그 토끼가 꿔로 뭐 할멈이 어디 뭐 허레 덩겨부난, 하르방은 저 어디 나무 떼고, 또 할망 또 뭐 허는데.

토끼가 확하게 일어난, 그 애길 앓단 솥뚜껑 열어난 툭 들이쳐 두고, [웃음] 두고, 7만히 누웠이나네, 이제 애길 낵 국 끓린 거라. 국 끓린 난, 할망은 하르방 7라,

“영감, 국 다 끓렸어요. 와서 잡수세요.”

허니깐, 할망 하르방이 국을 두 개 겨려 노난 하는 말이,

“이건 툭 우리 얼라 발 같으다.”

허나네,

“그러게 말이지.”

또 먹으면서,

“이거 우리 얼라 툭 손 같은데.”

허난,

“그래, 글썸 딱 같은데.”

허멍, 다 먹어가난 토끼는 알아들엉 잇당, 툭툭 튀엉 나완,

“지 자석 지 잡아먹는 거, 네 좇 빨아라 네 좇 빨아라.”

튀엉 돌았젠 허는 말.

토끼가 그만큼 욱았젠.

- 핵심어 : 할망, 하르방, 산토끼, 물애기, 솥, 국, 피